

# “좋은 책을 한권이라도 더 읽혀야죠”

## ‘청소년에게 책 보내기’ 운동 펼치는 이성원씨

사재를 털어 ‘한국 청소년 도서’ 재단을 세운 이성원씨(62). 초로에 접어든 그는 적 선동에 위치한 네평 남짓한 사무실로 매일 출근한다. 범람하는 책들 속에서 양서를 고르고 그것들을 구입하여 각급 학교와 군부대에 기증, 청소년들로 하여금 책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다. 재단 설립 첫해인 90년에 3개 중등학교에 3천권의 책을 기증한 이래 95년 현재까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군부대 등 모두 90여곳에 8만권에 달하는 책을 보냈으며, 오는 2천년까지 10만 권 가량의 책을 더 보낼 계획이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오는 2000년까지 55만권의 책을 보낸다는 계획으로 자금을 마련했는데, 몇년 사이에 책값이 세배 가까이 올라버리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한권이라도 더 구입해서 청소년들에게 읽고 싶어하는 이성원씨는 책값이 오르는 것이 서운하기만 하다. 활자가 커지고 종이 가 고급화하고 한권에 묶을 수 있는 책이 두권으로 나뉘고 있는 추세여서 구입 단가가 예전보다 몇곱절이나 들어간다면 안타까워한다.

### 사회에 진 빚 갚으려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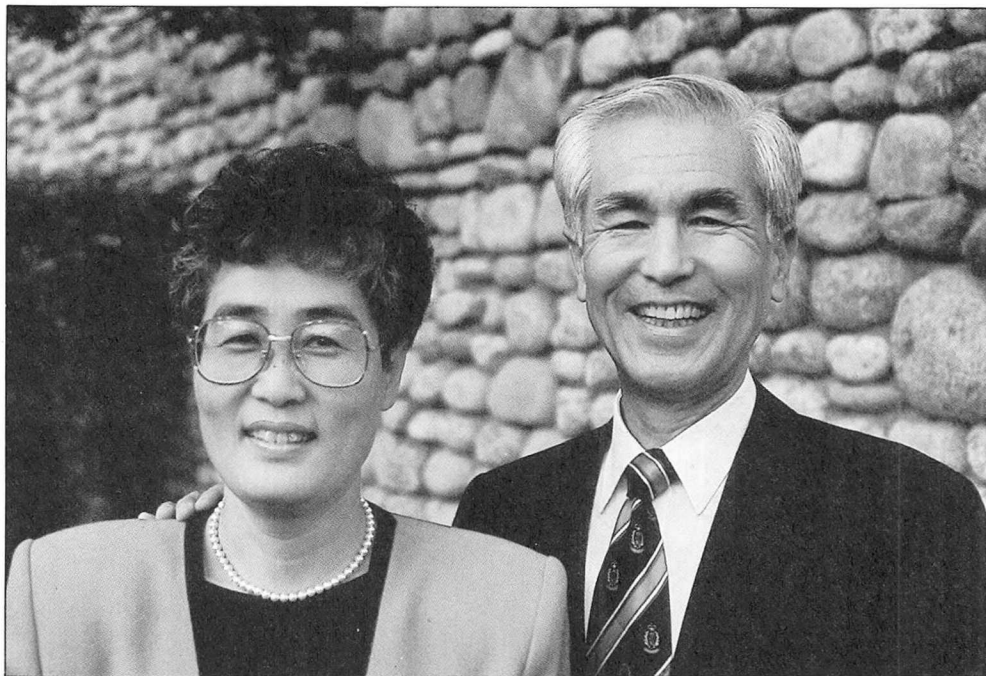
“육이오 사변을 경험한 세대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말 못할 고생들을 겪었습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죠.”

건설회사에 다니다가 독립해서 건축업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 이성원씨는 가난 때문에 책 한권 읽기가 쉽지 않았던 청년 시절을 회상한다. 그 당시 간신히 손에 넣을 수 있었던 몇 안되는 책들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독서경험이 오늘까지 자신을 이끌어 온 힘이 되어주었다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초로의 나이에 접어들어 그동안 사회에 진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청소년들에게 책 보내기’를 그 방법으로 택했다.

“집안 식구들의 동의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다행히 반대 의사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대는커녕 저보다 더 열성적으로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원씨의 부인인 민용자씨(50)는

**이성원·민용자씨 부부는 자신들이 보내준 도서가 ‘끔찍한 자물쇠가 항상 채워져 있는 전시용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경우를 발견할 때가 가장 속이 상한다. 책이란 책장에 꽂아놓고 구경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성원·민용자씨 부부.

이 일에 남편못지 않게 적극적이다. 날마다 남편과 함께 나란히 출근하는 민용자씨는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책들을 일일이 직접 읽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책인지의 여부를 가려낸다.

“기왕이면 좋은 책을 사서 읽혀야죠. 비싼 돈 들여서 어렵게 마련한 책들인데...”

남편이 퇴근하기 한시간쯤 전에 먼저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과 아이들의 저녁준비를 한다는 민용자씨는 왜 가정부를 두지 않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가로젓는다. 가정부를 쓸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책 한권이라도 더 사서 보내겠다는 것이다.

“사는 날까지 그냥 우리가 가진 돈으로 단출하고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꽤 끼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성원·민용자씨 부부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주위에 알려지면서 이를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양의 뜻을 밝힌다.

### 학생들의 감사편지 읽는 기쁨도 커

이성원·민용자씨 부부가 보내고 있는 책은 한 학교당 보통 1천권 가량으로, 강남의 부유한 학교들을 제외한 전국 각지의 초중교를 대상으로 삼는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입시에 시달리는 까닭에 책을 보내도 거의 읽지 않아서 최근들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대신 군부대를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예상을 넘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반응이 가장 좋은 곳이 군부대입니다. 한 부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는 몇 십권을 헤아리는 것이 고작인데, 그나마 전시용이어서 사병들이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알다시피 우리나라 군인들 학력이 좀 높습니까. 다들 책에 굶주려 있는 상태라서 굉장한 환영을 받습니다.”

지방에 있는 국민학교와 중학교 역시 반응이 좋아서 학생들의 감사 편지가 속속 답지한다. 아무리 바쁘고 편지가 많아도 이성원씨는 편지 하나하나에 일일이 답장을 쓴다. 그런 식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가 어떤 식으로 도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다음에 책을 보낼 때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얻기도 한다.

보내준 책으로 문고가 만들어지고 나면, 해당 학교나 군부대에서 초청을 하게 마련이다. 초청을 받고 부부가 나란히 집을 나설 때면 마치 학창시절 수학여행을 떠나는 순간에 맞보았던 설레임을 느낀다.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서울로 다시 돌아올 때면 오래 그들 손에는 막걸리, 참기름, 쌀 등 각종 토산물들이 한아름씩 들려 있다. 적선동의 아담한 사무실에 걸려 있는 여러 흙내음 풍기는 장식물들은 모두 그런 식으로 얻은 것들이다.

이성원·민용자씨 부부는 자신들이 보내준 도서가 가능하면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도록 애를 쓴다. 학교 도서관에 책을

들여놓으면 ‘책 읽는 습관이 들어 있는 소수의 아이들만 읽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각 학급에 도서를 분산, 비치토록 해야만 전교생이 책을 읽게 된다는 것이 그동안 이들 부부가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정성을 다해 책을 선정하고 구입하여 보내준 책들이 ‘끔찍한 자물쇠가 항상 채워져 있는 전시용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할 때가 가장 속이 상한다는 이들 부부는, 책이란 책장에 꽂아놓고 구경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평범한 사실을 재삼 강조한다.

“만약, 안창호 선생이나 괴테가 다시 살아나서 강연회를 가진다고 합시다. 아마 입장료를 5백만원씩 받는다고 해도 강연장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들어갈 겁니다.”

단돈 5천원이면 책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인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느냐며 이성원씨는 소탈하게 웃는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걸 궁금해하더군요. 글썩요. 앞으로의 일은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우리 부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종교인이나는 질문에 민용자씨는 친절한 얼굴로 대답했다. 무슨 일이든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네 타산적인 사고에 일침이 가해지는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 한동림 기자